

일본의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가계관리 특성 및 가계부 기록의 효과

-인터넷 리서치를 통한 가계부 조사*를 이용하여-

Effect of Keeping a Household Account Book on Economic Life of Japanese in their
20s to 30s in a Single-Family Household

-Using an Internet survey of household account books-

히로사키대학(弘前大學) 교육학부
준교수 이 수 진**

Faculty of Education, Univ. of Hirosaki
Associate Professor Lee, Sujin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 문헌 |

〈Abstract〉

In light of today's socioeconomic scenario, life management skills, especially economic life management skills are essential. This study focuses on a household account book as a tool for economic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economic management in terms of the effect of keeping a household account book on Japanese in their 20s to 30s in a single-family household. It also compares the awareness of the change in economic life behavior between before and after keeping a household account book. Moreover, it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continuity in keeping a household account book.

This Study used data obtained from an Internet survey of household account books by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Household Economics in Japan. The study sample

* 본 조사는 일본 공익재단법인 가계경제연구소 「생활경제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에 관한 연구」(2009-2011년도) 프로젝트 위원회에서 수행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위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주저자, 교신저자: 이수진(pourtant22@gmail.com)

consist of 1,255 Japanese in their 20s to 30s who kept household account records for a month as well as preliminary and post-survey information about these peop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annual income of the subjects was at most 3,000,000 yen; their level of financial assets was at most 1,000,000 yen, their economic life behavior became future-oriented after practice of keep a household account book in that they established a budget and savings plan. Second, keeping a household account book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ople that they have budget and spending plans for the next year. Finally, factors that affected the continuity in keeping a household account book included the experience of keeping one from before.

Key Words: 가계관리 특성(Characteristics of Household Economic Management), 가계부 기록의 효과(Effect of Keeping a Household Account Book), 20-30대 미혼 독인가계(20s to 30s in a Single-Family Household)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원의 선택적 배분 및 욕구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서 의사결정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의 선택 문제, 생활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의 선택 문제 등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보다 나은 생활의 실현, 생활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의식적인 결정과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활상의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생활경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생활에 대한 예측의 불투명성이 클수록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생활설계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경제불안 등도 한몫 거들면서 소득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의 획득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극대화하는 방법, 가계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금융 교육, 금융 경제 교육,

경제 교육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重川, 2007; 色川, 2008),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과 ‘자기정보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1년 3월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이 재개정되어 발표되었고 이를 계기로 경제적 규제 철폐의 방향성과 더불어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경제생활의 전체는 ‘선택지의 확대’와 강한 ‘자기책임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重川, 2007:203), 御船(2001a:188)는 ‘자기책임’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자신이 구입할 상품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며 그 결과로 얻어진 이해득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기책임’과의 관계에서 보면 선택지의 확대는 선택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없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重川, 2007).

각 개인에게는 선택 능력과 함께 자기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에 경제에 관련한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重川(2007)는 이

러한 교육은 생애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했으며 특히 청년들의 자립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현재, 어린 시절부터 청년층에 걸쳐서 실시되는 교육의 효과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 교육의 효과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 파이낸셜 플래너(FP) 협회가 20세부터 29세까지의 3,7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의 라이프플래닝 의식조사」(日本FP協會, 2009)에서 ‘일상적인 가계관리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47.9%로 나타나 ‘직업의 확보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4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관리에 관심이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하였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도 가계관리를 시도해 본 이들이 적절한 관리방법에 관한 서포트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개개인이 자립적인 의사결정능력 및 관리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학교교육 및 생애교육 등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에서 2005년에는 内閣府 주최로 경제 교육서밋이 개최되기도 하였다(重川, 2007). 이와 더불어 자기정보 관리의 중요성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御船(2001b:116, 2006:7)는 ‘자기정보’를 자신에 대한, 자신에 의한, 자신을 위한 정보라고 하였으며 개인정보와는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御船(2004)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 정보 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개인 이용 및 활용 수준과 범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개인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상품 정보의 활용 격차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컨트롤의 격차, 더 나아가서 가장 격차가 큰 것은 자기정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 자신의 가계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또는 자신의 생활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의 축적 수준에 격차가 크다는 것을 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생활의

주체성을 유지하고 생활상의 정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 교육, 금융 경제 교육, 경제 교육 등 용어는 다양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며 동시에 가계관리 능력, 즉 금전의 출납에 관계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色川, 2008). 또한 금전은 한정된 자원으로 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御船, 2001b). 최근 개인을 둘러싼 경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돈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적절한 사고 즉 금융 리터러시 능력이 없다면 개인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생각은 세계적으로 공통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金融広報中央委員會, 2013).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부터 보면 우리들에게 생활경영 능력 특히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관리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경제 교육의 필요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교육의 도구의 하나로서 가계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가계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가계부 기록 현황 및 가계부 기록의 효과를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 가계부 기록 전후의 의식 및 행동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성인을 위한 경제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가계부의 의의 및 이용 실태

생애를 통틀어 볼 때 생활설계에는 단계적, 주기적 변화를 파악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여유가

없는 때를 대비하는 장기생활설계와 현재의 생활을 기점으로 하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전 및 물건 등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족의 만족을 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단기생활설계가 있다. 특히, 단기생활설계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생활구조 중에 생활의 안정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며 가계 면에서 보면 현재 지갑 속에 있는 금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혹은 이번 달에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배분하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단기생활설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일 혹은 매달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고 가정의 경제생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가계부이며 가계관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다(坂本, 1984). 또한, 가계부 기록은 획득하고 지출한 금전의 원천과 금액을 기록하는 과정이며 이 기록의 첫번째 가치는 일정기간의 재무 발생 사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는 데 있다(윤정혜·이기춘·성영애, 2010).

이전부터 가계부는 가계관리의 중요한 도구로써 활용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가계에서 가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기록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三東(1960a, 1960b)는 1,239가구를 대상으로 일반 가정에서 어떤 상태로 가계부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가계부 기록률은 59.6%였으며 그중에서 주부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계가 73.1%로 가장 많았고 남편이 담당하는 가계는 7.1%, 부부가 협력해서 담당하는 가계는 4.3%로 나타났다. 가계부의 형식에 관해서는 20 종류 이상의 가계부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거의 단식부기였으며 현금 출납이 주요한 대상임이 밝혀졌다.

박명희·이승산·박미혜(1997)는 310명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54.6%, 기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45.4%였다. 또한, 가계부

기록 시 대부분 수입과 지출의 내역만을 기록하며 가계부에 부수적으로 수록된 월말 예산 결산표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계부가 계획적인 가계 운영을 위해 이용되기도는 단순한 금전출납부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가계부 형식에 관해서도 가계부 형식 자체가 대부분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과 결산 기능이 형식적이며 금전 출납부 형태의 기록만이 강조되어 온 점을 지적한 연구(박명희·이승산·배미경, 1998)도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가계부 기록의 주 담당자가 미혼자 혹은 미혼 남성인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인터넷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결혼을 할 의향이 있는 미혼자 568명 중 33.5%가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서((株)アイシェア, 2010)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도 가계관리의 수단으로 가계부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을 남녀별로 보면 미혼 남성 32.1%, 미혼 여성 36.2%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7.1%, 30대가 32.6%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상태에 있는 20-30대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대, 30대 모두 약 30%가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다(日経WOMEN, 2012년 2월호)는 조사결과도 있다. 또한 재팬인터넷컴 뉴스가 NTT 커뮤니케이션즈가 20대부터 40대의 취업상태에 있는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대 비즈니스인의 가계부 실태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를 질문한 결과 ‘땀과 끊임이 분명할 것 같다’, ‘규칙성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요령이 좋고 일처리 능력이 있을 것이다’, ‘믿음직하다’, ‘가정적일 것이다’ 등 호의적인 이미지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ジャパンインターネットコムニュース, 2011. 12. 14.), 이는 가계부 기록을 기혼여성만이 수행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보편

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용돈기록장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청년의 생활설계 및 금융 교육을 위한 가계 조사 방법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 종류의 조사 ‘가계부 기록 조사’, ‘가계부 양케이트 조사’, ‘금융 교육 양케이트 조사’를 이용한 연구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重川(2006)에서 가계부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록한 후 가계부 기록 사후 조사에 응답한 221명의 가계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일 때 용돈기록장의 기록 경험이 있는 비율이 42.5%였고, 조사 시점에서 용돈기록장 혹은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비율은 19.9% 였다. 대학 입학 이후의 기록 경험에는 거주형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약 80%는 현재 가계부를 기록 중 혹은 기록 경험이 있었다. 반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계부를 기록 중이거나 기록 경험이 있는 사람은 41.3%로 부모 비동거에 비해 기록 경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重川(2006)는 이러한 현상을 부모님 곁을 떠나서 생활의 대부분을 혼자서 꾸려 나가야 하는 경험이 가계부 기록 행위로 연결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色川(2008)는 重川(2006)와 같은 조사 자료 중에서 여자 대학생 18세부터 20세, 거주형태 중 기타를 제외한 자택생(부모 동거) 및 하숙생(부모와 별거, 혼자 사는 학생) 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거주형태별로 가계부 기록 상황을 살펴 본 결과, 혼자 사는 학생이 가계부를 쓰고 있는 비율은 40%,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이 가계부를 쓰고 있는 비율은 17.1%로 차이를 보였다. 色川(2008)는 重川(2006)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입생이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계부 기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해석하면서 신입생 중에서도 자택에서

다니면 가계부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는 유도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홍콩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821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식과 태도가 경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Chan, Chau과 Chan(2012)의 보고에서 11 항목의 금전관리 실천에 관해서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총점 77점 중에 평균 51.2점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항상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응답은 6.3%, 항상 지출을 기록한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2. 가계부 기록의 효과

우리는 가계부 기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득과 소비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저축을 극대화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가계부를 기록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박명희와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가계부 기록의 계기로서 ‘규모 있는 경제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83.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NTT 커뮤니케이션즈의 『현대 비즈니스인의 가계부 실태조사』에서 가계부를 기록하는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하였는데 가장 많은 응답으로 ‘쓸데 없는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기 위해서’가 73.3%를 차지하였고, ‘저축을 하기 위해서’가 54.3%,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을 없애기 위해서’가 5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ジャパンインターネットコムニューズ, 2011. 12. 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설계 교육에 있어서의 가계부의 활용 및 효과를 분석한 李秀眞(2013)의 연구에서 가계부 기록 후 작성한 자기 평가 시트 11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언제나 여행을 위한 자금을 저축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매달 수입을 모두 써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 기록을 통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찾고 싶었다'는 등의 경제생활의 개선을 피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생활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써 활용하였다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월초의 지출이 지난달의 지출의 초과분을 보충하기 위한 변제로 시작하면 그만큼 이번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메꾸기 위해서 다음 달 뭇에 미리 손을 대게 되는 부의 사이클이 일어나게 됨을 깨달았다. 매달 그달의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등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계획성 및 현재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경제생활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기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계부 기록을 통해 현재의 경제생활을 파악하고 낭비를 줄이는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주는 대목이며 가계부를 가계관리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 기록이 가져온 직접적인 영향을 제시한 조사 및 연구들도 있는데 저축액에서의 차이, 경제생활 습관의 차이, 소득 및 지출액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NTT 커뮤니케이션즈의 조사에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돈 사용 방법과 생활 습관을 비교한 결과 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통장의 기록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장 싼 교통편을 이용한 이동 경로를 검색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사에서는 이를 생활의 여러 면에서 낭비를 없애는 건설한 경제 감각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저축액 측면에서는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의 평균저축액은 약 568.7만 엔인데 반해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 저축액은 이보다 71.1만 엔 많은 약 639.8엔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과 자동차와 같은 지출 금액이 큰 물건의 구매를 위해서 저축을 해 본 경험률은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에서 53%, 가계부

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에서 72%로 나타났는데 기사에서는 이를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ジャパンインターネットコムニーズ, 2011. 12. 14.).

重川(2006)의 연구에서 가계부 기록 후에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무엇에 얼마만큼의 지출이 있었는지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는 응답이 84.7%(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응답)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입을 의식해서 지출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67.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데이터를 가지고 여학생에 한정해서 분석한 色川(2008)의 연구에서도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학생이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지출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비율이 83%로 높았다. 다만, 이전에는 기록했었으나 지금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학생과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학생은 지출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약 60%로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현재 가계부 기록 여부뿐만 아니라 가계부 기록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가계부 기록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알아내는 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重川(2006)의 연구에서 수입과 지출 파악에 관한 효과 이외에 가계부 기록 후의 행동 변화 인식이 큰 항목은 '가격, 질과 양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었다'(72.4%),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었다'(64.3%) 등 구매행동에 관한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李秀眞(2013)의 연구에서도 보이는데 '스스로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려고 슈퍼마켓에 가지만 언제나 도시락이나 만들어진 반찬거리에 관심이 가서 여분의 물건을 사고 만다'고 하는 자신의 구매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기술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重川(2006)는 '어떤 목적 이든지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해 보려고 생각하

게 되었다'는 응답이 60.6%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응답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를 미래라고 인지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가계부 기록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생활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계기를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重川(2012)는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조사 자료 중 가계부의 상세판과 간이판을 모두 포함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계부 기록 후의 행동 변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重川는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세판이 가계부 기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계부의 형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경향으로 가계부를 기록하는 것이 귀찮아서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가계부 기록 자체를 기피하는 행위는 그다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진 용돈기록장 실습의 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용돈기록장 기록 집단(31명)과 용돈기록장 미기록 집단(32명)으로 나누어 용돈기록장 쓰기 실천이 용돈관리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한국화(2010)의 연구에서 '한 달에 받는 용돈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점수가 용돈기록장 쓰기를 실천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돈을 사용한 후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반성합니까', '한달 용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점수도 용돈기록장 쓰기를 실천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용돈기록장 쓰기가 금전 사용 전과 금전 사용 후의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용돈으로 물건을 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인

지 생각해 보고 구매합니까'라는 질문에서도 용돈기록장 쓰기를 실천한 아동의 응답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용돈기록장 쓰기는 구매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기록장을 활용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경제 기본 개념과 화폐 개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김성자(2009)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34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경제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용돈기록장을 활용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유아들에 비해서 경제 기본 개념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희소성, 화폐가치, 가격과 교환의 인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화폐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화폐의 수량적 가치, 화폐 사용에 대한 이해, 거스름돈에 대한 이해, 화폐의 출처 인식, 가격결정 요인의 이해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의 가계경제연구소(2011)의 「소비 생활에 관한 패널 조사」의 제18회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 및 가끔 기록하고 있는 가계에서 '수입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 46%인데 반해서 지출액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는 '지출액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41%인 반면 가끔 기록하고 있다는 가계의 응답 비율은 28%로 나타나,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는 수입 및 지출액의 만족도 모두 높은 반면, 가끔 기록하고 있다는 가계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지출액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비해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경제 교육에서의 가계부 활용

유치원, 초등학교 및 대학교 등의 학교교육에서의 경제 교육과 그 도구로서 용돈기록장 혹은 가계부를 이용한 예를 소개하였는데 학교교육 이외의 현장에서도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hockey와 Seiling(2004)는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IDA)의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등록된 저소득층 성인 302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그 교육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6 항목의 금전관리 행동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전후의 점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6 항목은 ‘경제적 목표가 있는가’, ‘지출을 기록하는가’, ‘지출계획을 세우는가’, ‘부채를 줄이고 있는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을 위해서 돈을 마련해 놓는가’, ‘저축을 하고 있는가’ 등이다. 금융 교육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6 항목 모두 사후검사의 점수가 사전검사의 점수보다 높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며 특히,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을 위해서 돈을 마련해 놓는가’였다.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지출기록을 하고 있을수록 계획되지 않은 지출을 위해 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steen, Muske와 Jones(2007)는 Money2000™ 프로그램에 참가한 44명에 대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부채를 줄이는 것’과 ‘저축을 늘리는 것’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있을수록,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수록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Lusardi, Mitchell과 Curto(2010)는 NLSY97의 Wave 11 자료(2007-2008년도)를 이용하여 23-28세인 청년층 7,417명을 대상으로 이

자율, 인플레이션, 리스크 분산에 관한 금융지식 및 이해력을 검증한 결과, 각각의 정답률이 이자율에 관해서는 79.3%,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54.0%, 리스크 분산에 관해서는 46.7%이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금융 교육이 금융지식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다고 강조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경제적인 계약에 참여하기 이전에, 또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리터러시 교육이 유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Chan과 그의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는 금전관리 실천이 부채와 신용카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람직한 금전관리 실천을 할수록 친구로부터 부채를 얻어 쓰는 경향이 줄어들었고 물건을 사기 위해 부채를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투자, 신용카드, 부채 등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금융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예산수립과 계획, 신용카드와 부채의 개념 및 이용조건, 투자의 기본 개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금전관리 실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07년에 정리한 「다중 채무 문제 개선 프로그램」의 취지 설명문에서 다중 채무자 발생 방지를 위한 금융 경제 교육의 강화 항목으로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대처와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의 측면에서의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인을 위한 금융 경제 교육에 있어서 용돈기록장 및 가계부를 기록하는 것이 다중 채무자의 발생 방지에 유용하며 용돈기록장과 가계부를 기록하는 습관을 널리 퍼뜨리는 관계자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多重債務者対策本部決定, 2007; 色川, 2008).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재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가계관리의 개선을 위한 도구로써 가계부 기록이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계부 기록은 단순한 금전의 출납기능뿐만 아니라 구매행동 및 소비 습관에도 크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가계부 기록 행동이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 기록의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가계부 기록 전후의 조사 및 가계부 기록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가계부 기록의 효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가계관리 특성(가계부 기록 경험, 가계관리 실태,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1.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가계관리 특성(가계부 기록 경험, 가계관리 실태,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은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2.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가계관리 특성(가계부 기록 경험, 가계관리 실태, 경제

생활에 관한 만족)은 경제적 특성(소득, 자산, 부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후 경제생활 변화 인식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가계관리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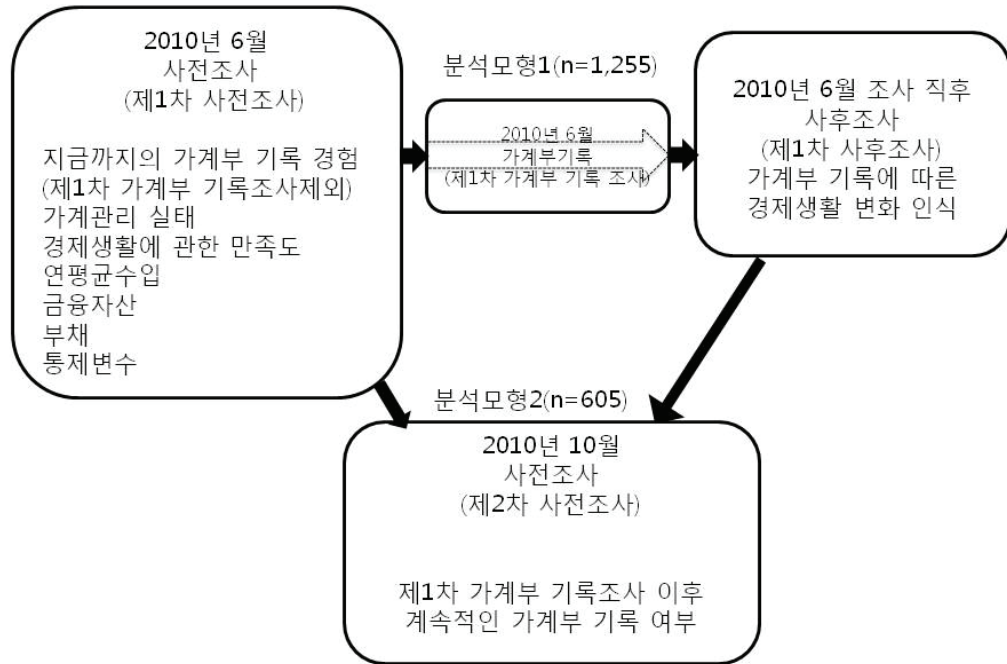
- 2-1.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계부 기록 조사 후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2-2.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계부 기록 조사 후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2-3.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의 가계관리 특성에 따라 가계부 기록 조사 후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지속적인 가계부기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는 2010년도에 조사된 일본 가계경제연구소의 『생활경영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실시한 「인터넷 리서치에 의한 독신가계의 가계부 조사」¹⁾를 분석자료로 하였다. 이 조사는 20-30대 미혼자로 단독 가계를 이루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2010년 6월과 10

1) 본 조사는 인터넷 조사 형식에 의한 가계부 조사를 동일한 미혼 독신가계에 대해서 두 달간(2010년 6월과 10월) 실시하였다. 조사는 인터넷 조사회사(주)인테지에 위탁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상기 회사의 모니터 등록 정보로부터 20-39세, 독신, 미혼자인 대상자 10,638명(남자 5,624명, 여자 5,014명)에 대해서 조사 협력을 부탁하였고 5,829명(참가 승낙률 54.8%)로부터 협력을 얻었다. 5,829명의 참가 승낙자 중 2,532명에 대해서 사전조사 양케이트를 송신하였다. 송신 방법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탈락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남녀 6:4의 비율로, 각 성별의 연령대는 균등하게 하여 송신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坂本和靖・重川純子(2012)「第I部第1章「生活経営における家計記録に関する研究」プロジェクトの目的と調査方法について」公益財団法人家計経済研究所『ひとり暮らしの若者と家計簿—インターネット調査による若年単身家計と家計管理—』, 3-14를 참고하기 바람.



〈그림 1〉 분석모형

월에 각각 1개월에 걸친 가계부 기록을 통해 얻어진 가계부 기록 조사(상세판 및 간이판)와 가계부 기록 조사 전후에 이루어진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 2를 해결하기 위해 6월 상세판 가계부 기록 조사(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라 칭함)에 전기간(30일) 응답이 있으면서 6월 사전조사(제1차 사전조사라 칭함) 및 6월 사후조사(제1차 사후조사라 칭함)에 응답이 있는 1,2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문제3을 해결하기 위해 10월의 상세판 가계부 기록 조사(제2차 가계부 기록 조사라 칭함)에 전 기간(31일)의 응답이 있으면서 제1차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 제2차 사전조사에 모두 응답한 6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모형을 두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모형 1의 종속변수는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조사된 경제생활 변화 인식이며 모형2의 종속변수는 제1차 사전조사 및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제2차 사전조사 이전까지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여부이다. 경제생활 변화 인식은 가계부 기록의 질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지속적인 가계부 기록여부는 지속성 측면에서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삼고자 하였다. 가계부 기록에 따른 경제생활 변화 인식은 경제와 사회에의 관심에 관한 1 문항, 지출억제에 관한 4 문항 (Cronbach's $\alpha=0.814$), 구매행동에 관한 3 문항

(Cronbach's $\alpha=0.865$), 지출 파악에 관한 3 문항 (Cronbach's $\alpha=0.660$), 계획성에 관한 3 문항 (Cronbach's $\alpha=0.860$)의 다섯 영역으로 묶어서 변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제1차 사전조사 항목 중에서 가계부 기록 경험, 가계관리 실태,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도 및 경제적 특성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계관리 실태는 예산수립 관련 2 항목, 신용카드이용 관련 2 항목, 차입 및 지불지연 관련 2 항목이 포함되었다. 또한,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도는 현재의 수입, 소비지출 금액, 자신의 돈 사용방법, 가계상태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특성으로는 연평균 소득, 금융자산 보유액, 부채여부가 사용되었으며 통제 변수로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포함시켰다. 연평균 소득은 「300만 엔 미만」과 「300만 엔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금융자산은 「100만 엔 미만」과 「100만 엔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부채에 관해서는 분석에서는 「부채 없음」과 「부채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분석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59%, 여성이 41%였으며, 연령 분포는 20대와 30대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의 분포를 보면 4년제 대졸이상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는 14.1%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은 300만 엔 이하가 44.7%, 300만 엔 이상이 55.3%였으며, 금융자산의 경우 100만 엔 이하는 53.1%, 100만 엔 이상은 46.9%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부채여부의 경우 부채가 없는 경우가 66.1%로 부채가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제1차 사전조사 이전부터의 가계부 기록 경험은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응답이 38.2%, 가끔 기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11.3%로 응답자의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제시

하지 않았으나 가계부를 현재 기록하고 있거나 기록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계부 기록 기간을 질문한 결과,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17.3%로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는 응답과 2년 이상 3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13.1%와 10.5%로 나타났다.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여부는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46.5%, 이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기록하고 있다는 응답이 10.3%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계부를 기록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응답(복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영수증을 받았다(84.9%), 거의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기록하였다(31.6%), 휴대폰에 메모하였다(22.8%), 수첩, 노트 등에 메모하였다(18.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구매 이력, 잔액 등을 확인한 다거나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가계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 이력 및 잔액을 확인하였다는 응답은 10%에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가계부 기록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영수증을 받는 행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7%로 가장 많았고, 수첩, 노트 등의 메모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9.8%, 휴대폰에 메모를 한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3.6%, 거의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기록한 행동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5.1%로 나타났다.

가계부 기록에 관한 공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조사 자료의 대상자들은 가계부 기록률이 높으며 기록 기간도 비교적 긴 응답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n=1255)

변수		정의	빈도 (평균)	% (SD)	
모형1 종속변수	경제와 사회에 대한 관심	가계부 기입을 통한 변화 중 경제와 사회에 대한 관심에 관한 항목으로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의 1항목으로 구성 6점 척도(그렇다(1)-그렇지 않다(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2.81	1.53	
	지출 억제	가계부 기입을 통한 변화 중 지출행동에 관한 항목으로 '수입을 의식해서 지출을 하게 되었다', '가계부에 기록하는 것이 귀찮아서 지출을 억제하게 되었다', '특정비목의 지출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 '배달메일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지출을 억제하게 되었다'의 4항목으로 구성. 각각 6점 척도(그렇다(1)-그렇지 않다(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또한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을 합산하여 4로 나누어 평균을 낸 값으로 정의.	3.19	1.24	
	계획적인 구매행동	가계부 기입을 통한 변화 중 구매행동에 관한 항목으로 '물건을 살 때 가격, 질, 양과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었다', '물건을 살 때,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구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의 3항목으로 구성. 각각 6점 척도(그렇다(1)-그렇지 않다(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본 연구에서는 3문항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평균을 낸 값으로 정의.	3.48	1.41	
	지출처 및 지출액의 파악	가계부 기입을 통한 변화 중 지출 파악에 관한 항목으로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를 이용한 지출액을 의식하게 되었다', '무엇에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되었다', '통장 카드 등의 명세서를 확인하게 되었다'의 3항목으로 구성. 각각 6점 척도(그렇다(1)-그렇지 않다(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본 연구에서는 3문항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평균을 낸 값으로 정의.	3.66	1.25	
	장래를 내다본 가계 관리	가계부 기입을 통한 변화 중 계획성 있는 가계 관리 파악에 관한 항목으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하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더 상세하게 예산을 세워 보려고 생각하게 되었다'의 3항목으로 구성. 각각 6점 척도(그렇다(1)-그렇지 않다(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본 연구에서는 3문항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평균을 낸 값으로 정의.	3.46	1.40	
모형2 종속변수*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 여부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부터의 가계부 기록 경험과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 현황을 묻는 두 문항을 조합하여 4가지 유형을 추출해 냄. 1=계속적으로 가계부 기록 2=이전에는 기록했으나 현재는 기록하고 있지 않음 3=이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기록하고 있음 4=전혀 기입하지 않음	281 26 62 236	46.5 4.3 10.3 39.0	
	가계부 기록 경험	제1차 사전 조사 이전의 가계부 기입 경험 1=정기적으로 기입 2=가끔 기입 3=일시적으로 기입했으나 현재는 기입하지 않음 4=전혀 기입하지 않음	479 142 399 235	38.2 11.3 31.8 18.7	
	독립변수	가계 관리 실태	매달 예산 수립 행동 6점 척도(언제나 하고 있음(1)-전혀 하고 있지 않음(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지출계획의 수립 향후 1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비교적 큰 지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6점 척도(언제나 하고 있음(1)-전혀 하고 있지 않음(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행동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십니까 6점 척도 (언제나 하고 있음(1)-전혀 하고 있지 않음(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신용카드 이용 잔고파악 신용카드 이용 잔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6점 척도(언제나 하고 있음(1)-전혀 하고 있지 않음(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3.48 2.97 4.80 4.34	1.67 1.59 1.51 1.79
		타인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차입	타인 및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십니까 6점 척도(언제나 하고 있음(1)-전혀 하고 있지 않음(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1.69	1.22
지불 기한의 지연		지불 기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불이 늦어지기도 하십니까 6점 척도(언제나 하고 있음(1)-전혀 하고 있지 않음(6))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1.68	1.19	
경제 생활에 관한 만족도		현재의 수입	5점 척도(만족(1)-불만족(5)),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2.24	1.15
		소비지출의 금액	5점 척도(만족(1)-불만족(5)),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2.47	0.98
	자신의 돈 사용방법	5점 척도(만족(1)-불만족(5)),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2.74	1.02	
경제적 특성	가계의 상태	5점 척도(만족(1)-불만족(5)),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	2.36	1.06	
	연평균소득**	작년 1년간(2009년4월-2010년3월)의 세후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재산수입, 사회보장금부, 임시수입·부수입 등도 포함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0=300만 엔 미만 1=300만 엔 이상	551 682	44.7 55.3	
	금융자산**	현재, 금융자산(예금 및 저축, 주식·채권·신탁 등의 유가증권(액면가)을 가지고 계십니까 0=100만 엔 미만 1=1000만 엔 이상	651 575	53.1 46.9	
	부채**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학비용자, 그 외의 대출을 포함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0=없음 1=있음	822 421	66.1 33.9	
통제변수	성	0=남성 1=여성	740 515	58.9 41.1	
		연령	0=20대 1=30대	623 632	49.6 50.4
	교육수준**	1=고졸 이하 2=2년제 교육기관 3=4년제 대학 이상	168 245 781	14.1 20.5 65.4	

주 *모형2 종속변수는 제1차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에 모두 응답한 605명의 응답을 토대로 변수를 생성하였음
**교육수준, 연평균소득, 금융자산, 부채에 대한 응답자수는 기타를 제외한 숫자임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가계관리 특성에 따른 경제생활 변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χ^2)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속적인 가계부 기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분석(multinomial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계관리 특성

본 절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계관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가계관리 특성 중 가계부 기록 경험은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정기적으로 기록, 가끔 기록, 이전에는 기록했으나 현재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등 기록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한편, 가계부 기록 경험이 전혀 없다는 여성은 10.9%인데 반해 남성은 24.2%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가계부 기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정기적으로 기록이라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약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고졸 이하에서는 28.0%, 2년제 교육기관에서는 30.2%, 4년제 대학이상에서는 43.1%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부 기록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고졸 이하에서는 27.4%, 2년제 교육기관에서는 19.2%, 4년제 대학이상에서는 16.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계관리 실태와 인구학적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0대보다 30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 잔고 파악’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경험 빈도와는 달리 여성보다는 남성이 신용카드 이용 잔고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20대보다는 30대에서 평균점이 높게 나타났다. ‘타인으로부터의 차입’은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차입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수립’에 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는데(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예산수립 행동의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큰 지출에 관한 ‘지출계획’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계획을 세우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불 기한의 지연’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지불 기한이 있는 것에 대한 지불지연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과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비지출 금액에 대한 만족’, ‘자신의 돈 사용방법에 대한 만족’, ‘현재 가계상태에 대한 만족’은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영역의 만족도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 영역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수입만족’에 있어서는 성별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유의수준 10%에서 유의), 다른 세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2〉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계관리 특성

구분	가계부 기록 경험				가계관리 실태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					
	정기적 기입	가끔 기입	이전에는 기입, 현재는 기입 안함	가계부 기입 경험 없음	예산수립	지출 계획	신용카드 구매	신용카드 이용잔고 파악	타인 으로 부터 차입	지불 기한의 지연	현재 수입 만족	소비지출 금액만족	자신의 돈 사용방법 만족	현재 가계상태 만족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빈도/평균	261	76	224	179	3.41	3.03	4.67	4.43	1.78	1.67	2.29	2.51	2.78	2.44
			%/SD	35.2	10.3	30.3	24.2	1.67	1.61	1.56	1.76	1.26	1.19	1.16	1.01	1.03	1.08
		여성	빈도/평균	218	66	175	56	3.58	2.89	4.98	4.20	1.56	1.70	2.17	2.40	2.67	2.26
	%/SD		42.3	12.8	34.0	10.9	1.67	1.56	1.43	1.84	1.13	1.20	1.14	0.93	1.00	1.02	
	$\chi^2 / t값$			35.77***				-1.77 †	1.58	-3.56***	2.24 *	3.18**	-0.43	1.87 †	2.05 *	1.85 †	2.95 ***
	연령	20대	빈도/평균	244	76	191	112	3.52	2.93	4.64	4.16	1.66	1.70	2.20	2.50	2.73	2.36
			%/SD	39.2	12.2	30.6	18	1.64	1.57	1.55	1.82	1.14	1.19	1.14	0.99	1.01	1.05
		30대	빈도/평균	235	66	208	123	3.45	3.01	4.95	4.51	1.71	1.67	2.28	2.44	2.75	2.36
			%/SD	37.2	10.4	32.9	19.5	1.70	1.62	1.46	1.75	1.28	1.20	1.16	0.97	1.03	1.07
	$\chi^2 / t값$			2.05				0.75	-0.94	-3.64***	-3.49 ***	-0.62	0.48	-1.10	1.13	-0.34	-0.02
	교육 수준	고졸이하	빈도/평균	47	19	56	46	3.31	2.72	4.37	4.21	2.02	2.14	2.05	2.24	2.51	2.01
			%/SD	28.0	11.3	33.3	27.4	1.60	1.54	1.83	1.93	1.41	1.44	1.06	0.96	0.98	0.96
2년제 교육기관		빈도/평균	74	23	101	47	3.60	2.91	4.71	4.22	1.70	1.78	2.07	2.39	2.62	2.20	
		%/SD	30.2	9.4	41.2	19.2	1.69	1.59	1.61	1.87	1.26	1.31	1.14	0.96	1.06	1.03	
4년제 대학 이상		빈도/평균	337	95	221	128	3.48	3.03	4.96	4.44	1.58	1.52	2.37	2.56	2.84	2.51	
	%/SD	43.1	12.2	28.3	16.4	1.67	1.59	1.34	1.72	1.11	1.02	1.16	0.98	1.00	1.06		
$\chi^2 / F값$			34.02***				1.56	2.91	11.86***	2.14	9.80***	21.80***	9.86	8.66***	9.88***	21.09 ***	
경제적 특성	연평균 수입	300만 엔 미만	빈도/평균	204	70	176	101	3.61	2.87	4.57	4.12	1.75	1.80	1.92	2.33	2.62	2.12
			%/SD	37.0	12.7	32.0	18.3	1.64	1.60	1.64	1.88	1.26	1.28	1.01	0.96	1.03	1.02
		300만 엔 이상	빈도/평균	266	70	219	127	3.38	3.06	5.01	4.54	1.64	1.59	2.50	2.59	2.85	2.57
			%/SD	39.0	10.3	32.1	18.6	1.69	1.58	1.34	1.68	1.18	1.11	1.20	0.986	1.00	1.06
	$\chi^2 / t값$			1.93				2.44 *	-2.07*	-5.20***	-4.05 ***	1.46	3.08**	-8.95***	-4.54***	-4.00***	-7.45 ***
	금융 자산	100만 엔 미만	빈도/평균	218	81	217	135	3.49	2.84	4.55	4.26	2.00	1.98	2.03	2.25	2.54	2.05
			%/SD	33.5	12.4	33.4	20.7	1.64	1.56	1.66	1.84	1.40	1.37	1.09	0.92	1.01	0.98
		100만 엔 이상	빈도/평균	250	56	174	95	3.47	3.13	5.11	4.46	1.32	1.35	2.48	2.72	2.96	2.73
			%/SD	43.5	9.7	30.3	16.5	1.71	1.62	1.23	1.72	0.81	0.86	1.18	0.99	0.99	1.04
	$\chi^2 / t값$			13.78**				0.28	-3.21**	-6.70***	-1.90 †	10.24	9.45***	-6.93***	-8.50***	-7.35***	-11.87***
	부채 유무	없음	빈도/평균	319	97	255	151	3.45	2.95	4.84	4.20	1.38	1.51	2.24	2.57	2.84	2.51
			%/SD	38.8	11.8	31.0	18.4	1.71	1.61	1.51	1.84	0.86	1.01	1.14	0.98	1.02	1.07
있음		빈도/평균	156	43	140	82	3.56	3.00	4.73	4.61	2.27	2.01	2.24	2.29	2.55	2.09	
		%/SD	37.1	10.2	33.2	19.5	1.59	1.57	1.51	1.67	1.53	1.43	1.17	0.96	1.00	0.99	
$\chi^2 / t값$			1.47				-1.18	-0.56	1.19	-3.75 ***	-13.22***	-7.16***	0.10	4.81***	4.76***	6.79 ***	

† < .10 * < .05 ** < .01 *** < .001

경제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본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계부 기록 경험은 금융자산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금융자산이 100만 엔 이상인 경우 금융자산이 100만 엔 미만인 경우보다 가계부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한편, 가끔 기입한다거나 혹은 가계부를 기록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금융자산 100만 엔 미만의 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관리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든 경제적 특성 즉 연평균 소득, 금융자산, 부채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신용카드 이용잔고 파악’ 및 ‘지불 기한의 지연’이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소득 300만 엔 이상의 집단은 300만 엔 미만의 집단보다 신용카드 이용잔고를 파악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지불 기한의 지연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자산 수준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100만 엔 이상의 집단이 신용카드 이용잔고를 파악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지불 기한의 지연 빈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채유무에 의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신용카드 이용잔고 파악’, ‘타인으로부터의 차압’, 및 ‘지불 기한의 지연’이었는데 부채가 있는 집단이 부채가 없는 집단에 비해서 세 항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계획’ 및 ‘신용카드 구매’는 연평균 소득 및 금융자산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연평균 소득이 300만 엔 이상 혹은 금융자산이 100만 엔 이상인 경우에 지출계획 빈도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예산수립’에 있어서는 연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연평균 소득이 300만 엔 이하일 경우에 예산수립행동을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도는 연평균 소득과 금융자산에 따라서 네 영역의 만족도 모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300만 엔 이상일 때, 금융자산이 100만 엔 이상일 때 네 영역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영역 중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자신의 돈 사용방법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다. 부채유무에 따른 차이는 ‘소비지출 금액 만족’, ‘자신의 돈 사용방법 만족’, ‘현재 가계상태 만족’ 의 세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부채가 없는 집단이 부채가 있는 집단에 비해서 세 영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채가 없는 집단의 자신의 돈 사용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채가 있는 집단의 현재 가계상태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도 확인되었다.

2.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

1)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경제생활 변화 인식

본 절에서는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에 경제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의 가계관리 특성별로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을 검증하였다. 경제생활 변화 인식은 ‘경제 및 사회현상에 관심’,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지출내용 확인’,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경제생활 변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경제생활 변화 다섯 영역 모두 성별에 따른 인식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경제 및 사회현상에 관심’은 남성의 변화인식 수준이 높은 데 반해 그 외의 네 영역 즉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지출내용 확인’,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에서는 여성의 변화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화인식 수준이 높은 영역은 지출내역 및 명세서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지출내역 확인’ 영역이었다. 여성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구매행동’과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를 하게 되었

다는 영역의 변화인식 수준도 ‘지출내역 확인’ 다음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의 세 영역에서 30대보다 20대의 변화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가 보다 큰 항목은 ‘계획적인 구매행동’이었다. ‘경제와 사회현상에 관심’과 ‘지출내용 확인’도 20대의 변화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경제생활 변화 인식은 연령별 차이를 나타낸 영역과 동일한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영역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변화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출억제’ 및 ‘계획적인 구매행동’에 있어서는 교육수준별 차이는 있었으나 어떠한 패턴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며 다만,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변화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제생활 변화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평균 소득이 300만 엔 이하일 때 다섯 영역 모두 변화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계획적인 구매행동’,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금융자산에 따른 차이도 연평균 소득과 동일하게 다섯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금융자산이 100만 엔 이하일 때 변화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변화인식은 100만 엔 이상인 집단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였다. 부채유무와의 관련을 보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 ‘지출억제’ 및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2) 가계관리 특성에 따른 경제생활 변화 인식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의 가계관리 특성에 따른 경제생활 변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가계부 기록 경험에 따른 경제생활 변화 인식의 차이는 다섯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섯 영역 모두 가계부를 가끔 기록하고 있을수록 변화인식의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획적인 구매행동’, ‘지출내용 확인’,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의 변화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가계부 기록 경험 없음의 경우에 ‘경제와 사회현상에 관심’,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영역에서 경제생활 변화 인식의 평균점이 낮은 것도 확인되었다

가계관리 실태와 경제생활 변화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월별 예산수립과의 관계에서 예산수립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수록 변화인식의 평균점도 낮았으며 특히 ‘경제 및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낮았다. 한편 월별 예산수립을 하고 있을수록 다섯 영역의 경제생활이 변화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예산 수립을 자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다섯 영역의 경제생활 변화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정도의 큰 지출계획 행동도 월별 예산수립과 마찬가지로 지출계획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을수록 경제생활 변화 다섯 영역 모두에서 변화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큰 지출계획을 자주 혹은 언제나 하고 있을수록 경제생활 변화 인식이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임이 확인됐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행동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를 언제나 하고 있을수록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영역에서의 변화를 인식하는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출억제’ 및 ‘계획적인 구매행동’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잔고를 자주 혹은 언제나 파악하고 있을수록

(표 3)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과 가계부 기록 조사 후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

		경제와 사회 현상에 관심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지출내용 확인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성별	남성	평균	2.88	3.12	3.37	3.55	3.35
		SD	1.57	1.24	1.41	1.28	1.41
	여성	평균	2.71	3.28	3.64	3.82	3.63
		SD	1.46	1.23	1.40	1.19	1.37
	t값	1.86 †	-2.31 *	-3.33 ***	-3.77 ***	-3.54 ***	
N	1255	1255	1255	1255	1255		
연령	20대	평균	2.84	3.27	3.58	3.71	3.55
		SD	1.54	1.20	1.35	1.22	1.35
	30대	평균	2.78	3.10	3.39	3.61	3.37
		SD	1.52	1.27	1.45	1.28	1.44
	t값	0.67	2.38 *	2.48 *	1.33	2.33 *	
N	1255	1255	1255	1255	1255		
학력	고졸 이하	평균	2.79	3.27	3.59	3.76	3.71
		SD	1.49	1.20	1.39	1.19	1.38
	2년제 교육 기관	평균	2.84	3.33	3.63	3.72	3.58
		SD	1.50	1.24	1.35	1.20	1.30
	4년제 대학 이상	평균	2.80	3.11	3.38	3.60	3.34
		SD	1.54	1.25	1.43	1.29	1.42
F값	0.11	3.60 *	3.73 *	1.59	6.47 **		
N	1194	1194	1194	1194	1194		
연평균 소득	300만 엔 이하	평균	2.92	3.36	3.71	3.73	3.69
		SD	1.5	1.19	1.36	1.23	1.38
	300만 엔 이상	평균	2.72	3.04	3.29	3.60	3.27
		SD	1.55	1.26	1.42	1.27	1.39
	t값	2.34 *	4.51 ***	5.27 ***	1.84 †	5.35 ***	
N	1233	1233	1233	1233	1233		
금융 자산	100만 엔 이하	평균	2.88	3.36	3.67	3.79	3.70
		SD	1.54	1.21	1.39	1.23	1.38
	100만 엔 이상	평균	2.71	2.98	3.25	3.52	3.19
		SD	1.50	1.23	1.40	1.27	1.37
	t값	1.90 †	5.53 ***	5.30 ***	3.82 ***	6.53 ***	
N	1226	1226	1226	1226	1226		
부채 유무	없음	평균	2.81	3.14	3.44	3.64	3.40
		SD	1.49	1.21	1.38	1.21	1.36
	있음	평균	2.79	3.27	3.57	3.71	3.57
		SD	1.61	1.28	1.46	1.33	1.46
	t값	0.21	-1.71 †	-1.51	-0.93	-1.93 †	
N	1243	1243	1243	1243	1243		

†<.10 *<.05 **<.01 ***<.001

‘지출내용 확인’ 영역에 있어서 변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차입행동이 있을수록 ‘지출내용 확인’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으로부터의 차입행동이 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계획적인 구매행동’ 및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영역에서의 변화인식 수준이 높았다. 지불 기한의 지연 행동 빈도가 많을수록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영역에서의 변화인식 수준이 높았다. 특히, 지불 기한의 지연행동이 언제나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측면에서의 변화인식 수준이 다른 변화인식 수준보다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반면, 차입행동, 지불 기한의 지연 등의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생활 변화 인식수준이 높지 않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과 경제생활 변화 인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수입에 대한 만족과의 관계에서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지출내용 확인’,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입에 대해서 불만족할수록 네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인식의 평균점이 높았으며 특히 ‘지출내용 확인’ 영역에서 변화인식이 수준이 가장 높았다. 소비지출 금액에 대한 만족도 역시 ‘경제 및 사회현상에 관심’이외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소비지출 금액에 불만족할 경우 네 영역에서의 변화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특히, ‘지출내용 확인’ 영역에서의 변화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획적인 구매행동’ 영역과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영역에서의 변화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 사용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영역에서의 변화인식에 차이가 있

었는데 자신의 돈 사용방법에 불만족할수록 계획적인 저축, 지출, 예산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가계상태에 대한 만족은 ‘경제 및 사회현상에 관심’이외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현재의 가계상태에 불만족할수록 변화인식의 평균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출내용 확인’ 영역에서의 변화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부터의 가계부 기록 경험과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 현황을 묻는 두 문항을 조합하여 4가지 유형을 추출해 내었다. 제1유형은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부터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에도 가계부를 기입하고 있는 유형, 제2유형은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에는 기록하고 있었으나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유형, 제3유형은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에는 기록하고 있는 유형, 제4유형은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유형이다. 독립변수로는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의 가계관리 특성,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경제생활 변화 인식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가계부 기록 조사 전후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이용하였으므로 가계부 기록행동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 사람들에게 특히 주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왜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는지도 아울러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던 사람이 가계부를

〈표 4〉 가계관리 특성과 가계부 기록 조사 후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

				경제와 사회 현상에 관심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지출내용 확인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경제와 사회 현상에 관심	지출억제	계획적인 구매행동	지출 내용 확인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가계부 기록 경험	정기적 기입	평균	2.86	3.06	3.45	3.50	3.40	타인으로 부터 차입	전혀 하고 있지 않음	평균	2.71	3.10	3.41	3.56	3.35
		SD	1.55	1.26	1.43	1.34	1.46		있지 않음	SD	1.52	1.25	1.42	1.27	1.42
	가끔 기입	평균	3.27	3.54	3.97	3.90	3.92		가끔 하고 있음	평균	3.08	3.30	3.59	3.82	3.58
		SD	1.50	1.16	1.31	1.19	1.36		있음	SD	1.44	1.09	1.30	1.13	1.25
	이전 기입, 현재 기입 안함	평균	2.71	3.31	3.49	3.83	3.52		자주 하고 있음	평균	2.92	3.46	3.70	3.96	3.88
		SD	1.48	1.20	1.40	1.17	1.33		있음	SD	1.59	1.25	1.40	1.22	1.34
	가계부 기입 경험 없음	평균	2.60	3.00	3.24	3.56	3.21		언제나 하고 있음	평균	3.13	3.53	3.67	4.13	3.80
SD		1.51	1.26	1.38	1.19	1.36	있음	SD	2.20	2.02	1.95	1.55	2.02		
F값		6.59***	8.75***	8.16***	7.48***	8.34***	F값		4.06**	4.98**	2.39†	6.77**	7.06***		
N		1255	1255	1255	1255	1255	N		1255	1255	1255	1255	1255		
월별 예산 수립	전혀 하고 있지 않음	평균	2.25	2.70	2.85	3.42	2.82	지불 기한의 지연	전혀 하고 있지 않음	평균	2.72	3.10	3.39	3.56	3.34
		SD	1.49	1.25	1.38	1.33	1.33		있지 않음	SD	1.52	1.27	1.43	1.29	1.43
	가끔 하고 있음	평균	2.86	3.19	3.47	3.67	3.39		가끔 하고 있음	평균	3.02	3.37	3.66	3.87	3.68
		SD	1.44	1.15	1.30	1.13	1.25		있음	SD	1.50	1.14	1.35	1.14	1.30
	자주 하고 있음	평균	2.99	3.41	3.72	3.81	3.74		자주 하고 있음	평균	2.94	3.37	3.72	3.91	3.74
		SD	1.49	1.18	1.32	1.22	1.33		있음	SD	1.53	1.12	1.28	1.12	1.27
	언제나 하고 있음	평균	2.89	3.18	3.65	3.55	3.65		언제나 하고 있음	평균	3.33	3.70	3.87	3.64	4.29
SD		1.69	1.39	1.64	1.42	1.68	있음	SD	1.80	1.58	1.66	1.56	1.44		
F값		11.85***	16.04***	19.71***	5.16**	22.51***	F값		3.50*	5.32**	4.31**	5.98***	8.11***		
N		1255	1255	1255	1255	1255	N		1255	1255	1255	1255	1255		
지출 계획	전혀 하고 있지 않음	평균	2.26	2.84	3.07	3.44	2.99	현재 수입 만족	불만족	평균	2.81	3.24	3.58	3.72	3.56
		SD	1.44	1.27	1.44	1.33	1.36			SD	1.53	1.22	1.38	1.24	1.38
	가끔 하고 있음	평균	2.94	3.24	3.53	3.74	3.54		보통	평균	2.76	3.05	3.24	3.50	3.27
		SD	1.44	1.13	1.29	1.14	1.27		SD	1.48	1.23	1.41	1.18	1.42	
	자주 하고 있음	평균	3.06	3.40	3.73	3.78	3.74		만족	평균	2.89	3.13	3.41	3.63	3.31
		SD	1.50	1.19	1.31	1.21	1.34		SD	1.56	1.29	1.49	1.36	1.43	
	언제나 하고 있음	평균	3.00	3.20	3.63	3.51	3.54		F값		0.46	2.50†	5.94**	2.85*	5.52***
SD		1.84	1.57	1.83	1.53	1.86	N		1255	1255	1255	1255	1255		
F값		19.59***	12.83***	14.06***	5.55***	18.45***	F값		2.81	3.31	3.61	3.77	3.65		
N		1255	1255	1255	1255	1255	N		1255	1255	1255	1255	1255		
신용 카드 구매	전혀 하고 있지 않음	평균	2.85	3.41	3.77	3.33	3.66	소비 지출 금액 만족	불만족	평균	2.81	3.31	3.61	3.77	3.65
		SD	1.37	1.16	1.31	0.99	1.22			SD	1.55	1.24	1.40	1.27	1.38
	가끔 하고 있음	평균	2.92	3.19	3.42	3.37	3.43		보통	평균	2.74	3.00	3.29	3.51	3.22
		SD	1.51	1.14	1.31	1.10	1.36		SD	1.45	1.21	1.39	1.19	1.38	
	자주 하고 있음	평균	2.90	3.29	3.58	3.76	3.57		만족	평균	3.03	3.22	3.53	3.66	3.35
		SD	1.50	1.19	1.35	1.17	1.31		SD	1.60	1.26	1.42	1.33	1.44	
	언제나 하고 있음	평균	2.69	3.03	3.34	3.67	3.31		F값		2.17	8.34***	7.02***	5.52**	13.28***
SD		1.58	1.30	1.49	1.39	1.51	N		1255	1255	1255	1255	1255		
F값		1.83	5.07**	4.27**	5.06**	3.95**	F값		2.77	3.27	3.59	3.75	3.65		
N		1255	1255	1255	1255	1255	N		1255	1255	1255	1255	1255		
신용 카드 이용 잔액 파악	전혀 하고 있지 않음	평균	2.58	3.07	3.36	3.42	3.39	자신의 돈 사용 방법 만족	불만족	평균	2.77	3.27	3.59	3.75	3.65
		SD	1.52	1.25	1.46	1.18	1.40			SD	1.52	1.22	1.41	1.24	1.38
	가끔 하고 있음	평균	2.74	3.09	3.33	3.57	3.26		보통	평균	2.89	3.17	3.42	3.60	3.35
		SD	1.44	1.19	1.31	1.12	1.25		SD	1.46	1.22	1.36	1.20	1.35	
	자주 하고 있음	평균	2.92	3.24	3.48	3.76	3.52		만족	평균	2.75	3.06	3.40	3.61	3.32
		SD	1.45	1.13	1.26	1.16	1.28		SD	1.63	1.28	1.48	1.37	1.49	
	언제나 하고 있음	평균	2.83	3.21	3.59	3.70	3.51		F값		1.08	2.85†	2.31†	2.03	7.56***
SD		1.62	1.34	1.54	1.39	1.54	N		1255	1255	1255	1255	1255		
F값		2.24†	1.23	2.11†	3.59*	1.75	F값		2.78	3.27	3.57	3.75	3.62		
N		1255	1255	1255	1255	1255	N		1255	1255	1255	1255	1255		
								현재 가계 상태 만족	불만족	평균	2.78	3.27	3.57	3.75	3.62
										SD	1.54	1.24	1.42	1.27	1.39
								보통	평균	2.89	3.13	3.39	3.59	3.34	
									SD	1.42	1.15	1.29	1.13	1.33	
								만족	평균	2.80	2.97	3.30	3.44	3.06	
									SD	1.63	1.36	1.54	1.36	1.46	
								F값		0.65	4.91**	3.82*	5.39***	14.31***	
								N		1255	1255	1255	1255	1255	

†<0.10 *<0.05 **<0.01 ***<0.001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 및 가계부를 기록 하던 사람이 기록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가계부 기록률이 높으며 기록기간도 비교적 긴 응답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속적 기록」을 기준집단으로 한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줄에는 가계부를 계속적으로 기록해 온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전에는 기록했으나 현재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즉 무슨 요인이 가계부 기록 행동을 그만두게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 중에서는 가계부 기록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계 관리 특성 중에는 ‘지출계획’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향후 1년 정도의 큰 지출계획을 세우는 행동은 가계부 기록을 그만두게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가계부 기록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줄에는 가계부를 계속적으로 기록해 온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즉 무슨 요인이 가계부를 기록하도록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경제생활 변화 인식 중에서는 ‘지출억제’가 새롭게 가계부를 기록하게 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의 가계부 기록 실천을 통해서 지출을 억제하게 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가계부 기록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계관리 특성 중 ‘월별 예산수립’과 경제생활 변화 인식 중에서는 ‘경제와 사회현상에 관심’이 계속적 기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별 예산수립 행동을 하고 있을수록,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경제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신의 변화를 인식할수록 새롭게 가계부 기록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줄에는 가계부를 계속적으로 기록해 온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에도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에도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즉, 무슨 요인이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게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관리 실태 중에서는 ‘지불 기한의 지연’ 빈도가 높을수록 가계부 기록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경제생활 변화 인식 중에서는 ‘지출억제’를 하게 되었다고 인식할수록, ‘지출내용 확인’을 하게 되었다고 인식할수록 가계부 기록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월별 예산수립’을 하고 있을수록, ‘계획적인 구매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인식할수록 가계부를 계속적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일수록 가계부를 계속적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계부 기록을 통한 효과 두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는 지출억제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 지출억제 항목으로 설정한 문항은 ‘수입을 의식해서 지출을 하게 되었다’, ‘매일매일의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지출을 억제하게 되었다’, ‘특정 비목의 지출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에는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다가 한 달간 기록을 해 본 후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 데에 ‘지출억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단기적이라 할지라도 가계부 기록의 가시적 효과를 감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다는

일본의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가계관리 특성 및 가계부 기록의 효과 -인터넷 리서치를 통한 가계부 조사를 이용하여-

〈표 5〉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속적 기록 vs. 이전에는 기록, 현재는 기록하지 않음		계속적 기록 vs. 이전에는 기록하지 않음, 현재는 기록		계속적 기록 vs. 전혀 기록하지 않음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통제변수】							
성별	여성	.448	.508	-.145	.332	-.444 *	.226
	남성(ref.)						
연령	30대	.951	.516	.470	.321	.186	.214
	20대(ref.)						
교육 수준	2년제 교육기관	-.434	1.470	.317	.507	.004	.358
	4년제 대졸 이상	1.481	1.089	-.425	.468	-.774 *	.318
	고졸이하(ref.)						
【경제적 특성】							
연평균 소득	300만 엔 이상	.601	.546	.048	.345	.007	.229
	300만 엔 이하(ref.)						
금융 자산	100만 엔 이상	-.268	.549	-.500	.372	.128	.244
	100만 엔 이하(ref.)						
부채	있음	.652	.509	-.081	.351	-.219	.238
	없음(ref.)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의 가계관리 특성】							
가계 관리 실태	월별 예산 수립	-.077	.161	-.250 *	.116	-.359 ***	.078
	지출계획	-.400 *	.190	.056	.115	.007	.078
	신용카드이용	-.079	.218	-.039	.125	-.096	.083
	신용카드 이용 잔고 파악	.150	.156	.031	.109	.066	.072
	타인으로부터 차입	-.330	.278	-.065	.164	-.021	.111
	지불 기한의 지연	.215	.236	.106	.159	.223 *	.113
경제 생활에 관한 만족	현재 수입 만족	-.227	.261	-.009	.161	-.025	.111
	소비지출금액 만족	.485	.315	.072	.211	-.236	.143
	자신의 돈 사용방법 만족	-.366	.339	-.208	.212	.037	.138
	현재 가계상태 만족	-.211	.333	.182	.212	.012	.142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경제생활 변화 인식】							
	경제와 사회현상에 관심	-.190	.201	-.251 *	.123	-.158	.087
	지출억제	.187	.368	.526 *	.231	.488 **	.164
	계획적인 구매행동	-.135	.339	-.033	.231	-.568 ***	.157
	지출내용 확인	.420	.279	.009	.201	.461 ***	.130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	-.052	.332	.139	.225	-.124	.148
	Constants	-6.301	2.409	-1.811	1.356	1.916	0.905
N				566			
Log likelihood				-532.928			
$\chi^2(df)$				163.36(66)			
Pseude R ²				0.1329			

*<.05 **<.01 ***<.001

점은 행동을 촉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가계부 기록의 지속성 효과이다. 예산 수립을 하고 있을수록, 계획적인 구매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인식할수록 가계부를 계속적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이는 관계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면서 생긴 하나의 습관 즉 가계부의 장기적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의 가계부 기록 경험은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현재의 가계부 기록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가계부 기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미혼 독신가계의 가계부 기록 경험, 가계관리 실태,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 등의 가계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자신의 경제생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은 가계부 기록의 질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계속적인 가계부 기록여부는 지속성 측면에서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삼았다.

다음에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가계부 기록의 효과와 성인을 위한 경제 교육에의 적용 측면에서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특성 및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가계부 기록 실천 이후 경제변화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는 연평균

소득이 300만 엔 이하일 때, 금융자산 수준이 100만 엔 이하일 때 예산을 수립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는 등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를 의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에 관한 만족도에 관해서는 현재 수입에 대해서 불만족할수록, 자신의 소비지출 금액에 불만족할수록, 현재의 가계상태에 불만족할수록 ‘지출내용 확인’ 영역에서 변화인식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가계부 기록 행동을 통해서 넘겨하지 않은 수입, 그로 인해 수입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 놓을 여유가 없는 현실에서도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미래생활을 가늠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제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계부 기록은 지출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지출 패턴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계관리 실태 중 예산수립 및 지출계획의 정도에 따른 가계부 기록 실천 이후 경제생활 변화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부터 월별 예산수립, 향후 1년 정도의 큰 지출계획 등 어느 정도 계획성 있는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계부 기록을 실천해 본 후 경제생활 변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별 예산수립을 자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큰 지출계획을 자주 혹은 언제나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다섯 영역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진 우리의 경제생활 환경에서 의사결정 능력 및 생활설계 능력의 배양이 우선되었을 때 가계부 기록이 가계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효과도 증가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가계관리 실태 중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행동에 따라서 가계부 기록 실천 이후 경제생활 변화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를 언제나 하고 있을수록 ‘지출역제’, ‘계

획적인 구매행동',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영역에서의 변화를 인식하는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출억제' 및 '계획적인 구매행동'의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에 익숙해진 사람은 가계부 기록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생활에 대해서 되돌아볼 기회를 덜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신용카드 구매의 특성상 구매시점과 지불시점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행동 및 구매행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신용카드의 구조 및 이용 시의 유의점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가계부 기록을 통한 지출억제 효과를 크게 인식하는 것이 가계부를 기록하게 하는 가장 큰 유도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 이전에는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다가 한 달간 기록을 해 본 후 가계부 기록 행동을 하게 하는데 '지출억제'를 하게 되었다는 변화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가계부 기록의 가시적 효과를 감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계부 기록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하여 이를 통해 어떤 효과 예를 들어 지출억제와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되면 지속적인 가계부 기록 행동으로 이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예산 수립과 가계부의 계속적 기록 행동은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면서 생긴 하나의 습관 즉 가계부의 장기적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계부 기록 경험여부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생활 영역 모두에서 변화 인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섯 영역 모두 가계부를 '가끔 기록'하고 있을수록 경제생활이 변화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계획적인 구매행동', '지출내용 확인', '장래를 내다본 가계관리'의 변

화 인식 수준이 높았다. 여기에서 가계부를 가끔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추측해 보면 가계부 기록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출계획이 있을 경우, 혹은 일상적인 지출억제의 수단으로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가계부를 단순한 지출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드러나 지출내용을 확인하는 행동이 가계부 기록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坂本, 1984; 박명희 외, 1998)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계부의 기능이 출납 기록에 치우쳐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교육 도구의 하나로서 가계부에 주목하여 가계부 기록 실천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전조사, 가계부 기록 조사, 사후조사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계부 기록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사회사의 모니터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볼 때 가계부 기록 경험률이 상당히 높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가계부를 기록 해 온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이런 조사대상자의 배경이 작용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이지만 패널조사 형식을 띤 조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면서 형성된 긍정적인 경제 습관이 정착되어 있어서 단기적인 가계부 기록의 효과를 부각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가계부를 경제 교육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성인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조사 자료의 제2차 사전조사²⁾에서 제1차 가계부 기록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앞으로 경제 및 금융

에 관해서 어느 정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카드의 지식 및 이용상의 주의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자산운용의 자기책임 의식의 중요성,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 돈의 계획적 사용방법을 이해하는 것, 금융 트러블의 유의점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돈의 계획적 사용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요구도가 높다는 사실은 자기 진단이 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 파이낸셜 플래너(FP)협회(2009)의 조사에서도 ‘일상적인 가계관리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약 절반이나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가계부 기록을 일단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식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가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三東(1980b)에서 20 종류 이상의 가계부 형식이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가계부 기록 체험을 통해 각각의 목적 및 가계관리 스타일에 맞는 가계부 형식을 제안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축적된다면 가계 및 개인의 생활기록으로서의 가계부의 다양한 역할을 깨닫게 됨으로써 가계부 기록의 지속성에 있어서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산운용의 자기책임 의식의 중요성에 관한 요구도가 높은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 교육의 내용 중에 御船(2001, 2004)가 강조한 자기책임과 자기정보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생활설계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도 신용카드 이용 유무에 따라서 가계부 기록 조사 이후의 경제생활 변화 인식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Ch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2)에서도 대학생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에서도 신용카드에 관한 전반적 지식 및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 등이 콘텐츠로 포함된다면 그 유효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적인 경제지식과 경제 감각의 배양은 가계부 기록 실천의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성자(2009). 용돈기입장을 활용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경제기본개념과 화폐개념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2) 박명희·이승신·박미혜(1997). 가계재무관리 Software 개발을 위한 연구(I) -가계부내용분석과 가계재무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85-9.
- 3)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8). 가계재무관리 Software 개발을 위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36(2), 131-144.
- 4) 윤정혜·이기춘·성영애(2005). 가계경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5) 한국화(2010). 용돈기입장 쓰기실천이 아동용돈관리 능력향상에 미치는 효과-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6) 色川(2008). 家計簿からみた女子大学生の経済生

2)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항목은 돈의 계획적 사용방법을 이해하는 것, 기초적인 금융 및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카드의 지식 및 이용상의 주의점, 금융상품의 종류 및 상품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선택하는 방법과 능력을 기르는 것, 가계관리와 자산운용의 방법, 연금 등의 노후생활을 지지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 자산운용의 자기책임 의식의 중요성, 금융 트러블의 유의점,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의 9 항목이다. 응답은 매우 배우고 싶다(6점)에서 배우고 싶지 않다(1점)로 응답하게 하였고, 역코딩하여 평균점을 구하였다.

- 活と家計簿記帳の金融経済教育上の意義について. *クォーターリー生活福祉研究*, 17(3), 17-29.
- 7) *ジャパンインターネットコミュニティ*(2011). 家計簿をつけると人付けない人 貯蓄額に71万円の差—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調べ. 2011. 12. 14. <http://japan.internet.com/wmnews/2011214/4.html>.
- 8) (株)アイシェア(2010). 家計管理に関する意識調査. <http://release.center.jp/2010/12/1701.html>.
- 9) 金融広報中央委員会(2013). 金融教育の手引き.
- 10) 家計経済研究所編(2011). 「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について(第18回調査結果) http://www.kakeiken.or.jp/jp/jpsc/pressrelease/p18_all.pdf.
- 11) 李秀眞(2013). 大学生を対象とした生活設計教育における家計簿の活用および効果—大学生の家計簿記録と自己評価シートを手掛に—. *日本家庭科教育学会 第56回大会 研究発表要旨集*, 150-151.
- 12) 御船美智子(2001a). 「第9章 金融と生活者」御船美智子著『生活者の経済』放送大学教育振興会, 166-192.
- 13) _____(2001b). 生活と経済社会—生活創造時代の生きる力と生活設計. 教育資料, 132, 10-13.
- 14) _____(2004). 家計の現在—生活創造への再構築—. *クォーターリー生活福祉研究*, 13(3), 1-16.
- 15) _____(2006). 「第1章 現代社会と消費者科学入門」御船美智子編著『消費者科学入門』. 光生館, 1-10.
- 16) *日経WOMEN*(2012). 働く男子のホンネ☆大調査. 日本経済新聞社, 2012. 2.
- 17) 日本FP協会(2009). 20代のライフプランニング意識調査. <http://www.jafp.or.jp/about/news/files/newsrelease20090609.pdf>.
- 18) 三東純子(1960a). 家計簿記普及上の諸問題(第1報). *家政学雑誌*, 11(1), 68-73.
- 19) _____(1960b). 家計簿記普及上の諸問題(第2報). *家政学雑誌*, 11(3), 85-91.
- 20) 坂本和靖・重川純子(2012). 「第I部第1章「生活経営における家計記録に関する研究」プロジェクトの目的と調査方法について」公益財団法人家計経済研究所『ひとり暮らしの若者と家計簿—インターネット調査による若年単身家計と家計管理—』, 3-14.
- 21) 坂本武人(1984). 生活設計と家計簿診断.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22) 重川純子(2006). 「家計簿記帳の意義と方法—家計簿アンケート調査から」大学生の経済生活実態と金融教育研究会『若者の生活設計および金融教育のための家計調査方法の開発』, 22-31.
- 23) _____(2007). 「規制改革と家庭経済教育」日本家政学会家庭経済学部会編『規制改革と家庭経済の再構築』建邦社, 202-211.
- 24) _____(2012). 「第II部第1章 家計簿記帳の教育的効果—家計簿記帳が家計管理行動・意識に及ぼす影響」公益財団法人家計経済研究所『ひとり暮らしの若者と家計簿—インターネット調査による若年単身家計と家計管理—』, 32-43.
- 25) 多重財務対策本部決定(2007). 多重債務問題改善プログラム. <http://www.kantei.go.jp/jp/singi/saimu/kettei/070420/honbun.pdf>.
- 26) Chan, S.F., Chau, A.W. & Chan, K.Y.K.(2012). Financial knowledge and aptitudes: Impacts on college students' financial well-being. *College Student Journal*, 46(1), 114-132.
- 27) Osteen, S., Muske G. & Jones, J. (2007).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Its role in changing behavior. *Journal of Extension*, 45(3). <http://www.joe.org/joe/2007june/rb2.php>.
- 28) Shockey, S.S. & Seiling S.B.(2004). Moving into action: Application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behavior change to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Counseling Planning*, 15(1), 41-52.

- 29) Lusardi A, Mitchell, O. S. & Curto. V.(2010). of Consumer Affairs, 44(2), 358-380.
Financial literacy among the young. The Journal

- 투 고 일 : 2014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1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1월 29일